

이집트, 그 찬란했던 문명 II, 신전의 시대

고대 이집트의 역사 위에는 고왕국 · 중왕국 · 신왕국, 말기 왕조 시대, 그리고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왕위를 저버려야 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1 · 2 · 3 중간기의 시대가 끼어 있었던 긴 문명의 역사를 가진 이집트는 피라미드라는 대표선수를 앞세운 고왕국의 시대가 있어, 이집트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문명과 거대함이라는 상징성으로 아직도 그 이미지를 확정하기 일쑤다. 이집트의 역사 안에 '왕국'의 개념과 '중간기'의 개념이 공존하며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메르 · 바벨론 · 아수르 · 히타이트 등과 같이 이질적인 민족적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집트가 짧게 잡아 3000년, 길게 잡아 7000년에 이르는 고대문명 동안 단일한 왕조가 이어지며 이집트의 역사를 끌어갔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왕국 · 중왕국 · 신왕국과 같은 왕국의 시대는 상 · 하이집트를 통일한 왕권이 왕조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 사이 사이 존재했던 1 · 2 · 3 중간기는 이러한 통일 왕국이 해체되어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혼란기가 지방 각처의 호족세력들에 의해 난립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각각의 시대마다 여러 왕조가 존재하였다. 심지어 이집트 역사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순수 이집트인이 아닌 그리스인 혈통의 공주였다.

고대 초기, 강력했던 파라오의 신적 권위는 때때로 실추되어 갔고, 자연의 섭리를 읽어내지 못하면서, 전쟁에서 거듭된 패배를 하면서,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이상과는 다른 열등한 모습의 파라오를 겪으며, 백성들은 당연히 신의 경지를 의심하였을 것이고 파라오의 막강했던 권력은 허무하게 스러져가기도 하였을 것이다. 오랜 시간동안 왕권과 신권이 변화되어 갔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지만, 특이하게도 이집트는 그들이 추구하였던 문명과 문화의 특이성, 삶과 죽음에 대한 인생관, 태양신을 주신으로 삼으려 했고 파라오 사후에는 명부의 신인 위대한 오시리스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신앙의 개념을 3000년 내내 들고 갔다. 즉, 고대문명으로 치부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맥락을 달리하지 않고 무던히도 보수적인 행태를 이어나갔다.

이번 호의 이야기에서는 이러했던 고대 이집트의 인문 사회적 배경이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 그 변화가 가져온 건축의 행위와 형태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신왕국시대의 파라오를 중심으로 살펴 보려 한다.



조은연
협성대학교 초빙교수
경기도 문화재 위원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
1866년 장레옹제롬 작



신왕국 18왕조, 호렘헤브 (BC 1319년 ~ 1292년) 왕묘의 벽화. 출처: wikimedia commons.

◆ 상·하이집트, 이중 왕관의 무게를 견딘 중왕국의 파라오

고왕국 시대는 3 · 4 · 5 · 6왕조까지 4개 왕조가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줄곧 만들어내며 통일 왕조를 이어갔다. 이때, 파라오는 거대한 집이라는 뜻에 걸맞게 그가 곧 이집트를 위해 태어난 신이었고 이집트에 잠시 머무는 왕이었다. 수많은 왕이 그토록 거대한 피라미드를 분묘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신성을 의심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왕국이 무너지고 제1중간기가 되었을 때 7왕조 ~ 11왕조까지 5개 왕조가 존재했지만 통일왕국이 아닌 일부지역을 다스렸거나, 또는 재위기간 100일을 넘기지 못한 수많은 왕들이 저 왕조 안에 존재하였다. 이 기간은 약 140년간 지속되었고, 기원전 2040년경, 테베출신 11왕조의 멘투호테프 2세가 상 · 하이집트를 통일하면서 11 · 12왕조, 2개 왕조가 약 260년 동안 중왕국을 다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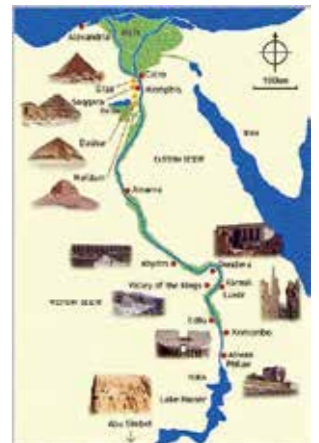


상하이집트의 백색왕관을 썼던 멘투호테프2세의 모습과 상 · 하이집트를 합친 통일왕조의 상징인 이중관을 쓰고 있는 모습. 세 번째 사진의 좌측, 멘투호테프 2세의 암골분묘이자 장제신전

테베출신 멘투호테프 2세가 이집트를 통일하였으니, 하이집트의 비옥한 땅 멤피스에서 나일강의 상류 지역인 테베로 수도를 옮

긴 것은 어쩌면 당연했고, 상 · 하이집트의 왕관을 합친 '프렌트pschent'를 쓰며 파라오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애썼다. 정말 힘들게 왕좌를 차지하고 이중의 왕관을 썼지만 이미 왕의 신성과 힘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었다. 왕 또한, 전쟁에서도 정치적으로 암살당할 수 있는 존재이고, 패배하면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연약한 보통의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로 의심받기 충분했는데, 나일강의 범람을 읽어내지 못하고 치수에 성공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겹쳐지면 백성들의 충성도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의 문명국, 아직도 왕의 권위는 충분히 강력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안과 서안이 나누어져 있다. 사막으로 뒤덮인 죽음의 땅이지만 매년 홍수 때마다 일어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나일강의 양안 주변은 축축한 땅위에서 초록의 생명이 강인하게 살아나는 땅이 되었다. 지난 호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초록이 무성한 땅을 검은 땅, 사막의 붉은 모래가 뒤덮여 있는 땅을 붉은 땅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일강의 서안은 죽음의 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고대의 그 이전부터 태양이 매일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 빠져가는 방향을 보며 동쪽과 서쪽을 지각했고, 동쪽은 삶이, 서쪽은 죽음이 관여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규정하였었다.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피라미드를 비롯한 왕조의 대부분 무덤들이 나일강 서안의 붉은 땅위에 놓여 있는 것은...



기자의 피라미드군 그 아래로 네크로 폴리스의 피라미드군(약 80여기), 왕들의 계곡에 마련된 분묘와 장제신전, 그 아래 왕비의 분묘군 등은 모두 나일 서안에 위치한다.

그런데 제1중간기와 중왕국은 고왕국의 파라오들처럼 무소불위의 왕권을 가지지 못했다. 기제의 거대한 피라미드 이후에도 파라오들은 자신의 피라미드를 만들어갔지만 피라미드의 상징이라 할 거대한 형상의 피라미드는 만들지 못했다. 고왕국이 이집트 역사의 뒤로 물러나고 제1중간기와 중왕국에 접어들었을 때도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선호했던 것 같다. 그러나 왕권의 약화로 지금은 형체조차 알 수 없는 부실한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또는 다른 기존의 피라미드에 끼어들어 더부살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법은 따로 있었다. 거대한 바위산을 뚫고 들어가 분묘를 만드는 것이었다. 훗날 신왕국의 왕들은 이러한 암굴묘에 자신의 사후를 의탁했다. 초기의 암굴묘라 여겨지는 지방호족들의 분묘 39기가, 이집트의 중부쯤에 위치한 베니하산의 바위산에 들어있다. 그런데 파라오의 묘와는 다른 때문인지 중왕국시기 베니하산의 암굴묘는 나일강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다.



베니하산의 암굴분묘군과 그중 크눔호텝 3세 묘의 벽화 재구성, 오른쪽 그림은 가난한 사람들 아픔의 무리로 추정

중왕국의 파라오들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는지 앞으로 전개될 신왕국의 파라오들에 비해 문화유산을 많이 남기지 못했다. 그리고 이민족에게 이집트의 통치권을 빼앗기는 무력한 모습을 보인 파라오들이기도 했다.

◆ 신권에 결합하여 왕권을 되찾은 신왕국의 파라오

신왕국은 18·19·20왕조가 약 500년간 다스리며 이집트의 번영과 파라오의 권위를 회복하는 때이다. 신왕국 시대는 우리에게 낯익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파라오들이 등장하는 시기다. 18왕조의 여성 파라오인 하트셉수트와 열한 번째 파라오이며 가장 과자였던 아멘호테프 4세, 그리고 그의 아들 투탕카멘, 이집트의 어떤 파라오보다 강력했던 람세스 2세, 이들 네명의 파라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왕들이다. 이들을 알면 신왕국 시대 문화적 배경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호모세 1세

테베출신의 아호모세 1세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신왕국의 시대, 18왕조를 시작한 왕이다. 그는 하이집트 삼각주 지역에서 200년이나 왕 노릇을 한, 이민족 히소스의 왕조를 몰아냈고, 상이집트 지역에서는 흑인 민족인 누비아를 제압해 다시 한 번 이집트의 통일을 이루어냈다.

2대왕 아멘호테프 1세가 후사 없이 죽은 까닭에 측근이던 투트모세 1세가 왕위를 이어받는다. 아멘호테프 1세가 그랬던 것처럼 투트모세 1세 역시, 그들의 치세기간 동안 신전건축에 열을 올렸다. 이집트의 신들은 같은 태양신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이름과 특성이 서로 달랐다. 때문에 서로 다른 태양신끼리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신들끼리 결합하여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곤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 그러한 행위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18왕조 때에는 수많은 지방 신의 신전들을 만들고, 자신의 죽음에 이들 신전을 끌어들이며 장례신전을 만들고 종교적 중심지라 여겨지는 곳에 기념신전을 만드는 일을 열정적으로 해냈다. 이것은 아마도 백성들이 믿는 신들을 자신들과 결합해, 다시 한 번 고왕국 시절의 강력한 왕권을 되찾고 파라오는 곧 신이었던 상태로 돌려놓으려 했던 의지일 것이다. 신에게 바치는 축제가 유난히도 많았던 이집트에서, 백성의 관심을 이 거대한 축제에 쏟게 만들고 자신들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당연히 18왕조 내내, 나일의 동안은 대개 신들을 위한 기념신전이 세워졌고, 나일의 서안에는 대체로 파라오들의 장례신전이 건립되었다. 그러했던 신전은 반드시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평면의 패러다임이 있었다.



투트모세 1세

이렇게 이집트의 전역에 아름답고 위대한 신전을 건설하지만 정작 투트모세 1세는 현재 룩소르라고 부르는, 테베의 나일강 서안, 왕들의 계곡, 공동 무덤에 들어간 첫 왕이었다. 이곳은 황량한 사막의 바위산, 완벽한 고독이 그의 죽음을 고요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곳 바위산에 암굴을 뚫고 들어가 바위산 전체를 거대한 피라미드로 삼았지만 그의 고요는 오래가지 못했다. 신왕국 대부분의 파라오들이 이곳에 사후의 집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룩소르의 모든 사람들은 나일강의 양안에 죽음의 신전과 기념비적 신전이 동시에 놓인 풍경을 바라보며 묘하게도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야 했다.



1. 스피нк스의 길, 이곳에는 파라오의 거상이나 오벨리스크가 서기도 한다. 2. 탑문(pylon) 오벨리스크에 이어 다시 한 번 왕들의 서사가 그려진다. 3. 중정마당(court) 4. 다주실(hypostyle hall) 5. 성소(Sanct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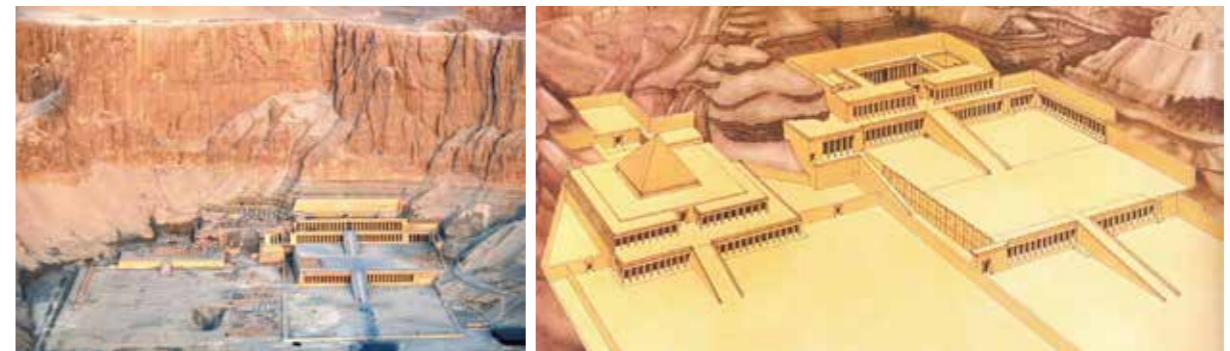
① 이집트의 번영을 이룬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의 장례신전

투트모세 1세는 투트모세 2세와 하트셉수트 여왕의 아버지이다. 이 아들과 딸은 이복남매로 훗날 결혼해 부부가 된다. 이것 또한 당시 이집트 왕실의 관습으로, 그들에게는 이상할 것이 없는 행위였다. 심지어 딸을 왕비로 삼는 아버지도 있으니 우리를 생각의 잣대로 그 시대 그들의 관습을 재단하려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투트모세 2세는 재위기간이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단명한 왕이었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어 후궁에게서 난 훗날의 투트모세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 왕자는 이때 겨우 아홉 살, 어떤 학자들은 그가 흥해를 가르고 자기민족을 출애굽 시킨 모세와 함께 자라며 왕위를 다룬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나일 강에서 떠내려 온 아기를 건진 하트셉수트 여왕이 아들로 키웠다고 하는데, 이름이 '모세'니 그런듯하기도 하지만, 역사의 전후를 따지며 200년 뒤의 람세스 2세가 그 왕자라는 해석을 하면 또, 솔깃하게 믿어지기도 한다. 어쨌든 투트모세 3세가 너무 어렸으므로 하트셉수트는 섭정을 시작했고 그길로 즉 여왕의 길로 나서서 20년간, 파라오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녀는 남성 파라오의 복장을 하고 관을 썼으며 심지어 가짜수염을 달기도 하였더니 성공적인 치세만큼이나 대단한 야망을 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의 무덤은 왕가의 계곡에 있지만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이르-알-바흐리'라 하는 곳에 자신의 장례신전을 마련하였다. 어느 파라오의 것보다도 장대하고 아름다운 암굴의 신전을 건설한 것이다. 이 신전은 앞서 보았던 중왕국을 통일한 멘투호텝의 장례신전 바로 옆에 그것을 본따 건설하였다. 여왕의 장례와 제사의식은 물론 아문-레, 아누비스, 하데스여신을 함께 모시는 이 신전은 깎아지른 절벽을 배경으로 500년의 간격을 두고 멘투호텝과 하트셉수트가 나란히 서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이토록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마치 현명하고 위대한 파라오의 생애를 이 신전 건축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파라오 하트셉수트



룩소르 나일강 서안에 위치한 '데이르-알-바흐리' 절벽 아래 멘투호텝 2세와 하트셉수트의 장례신전이 500년의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놓였다. 사진의 우측 거대한 신전이 여왕의 신전이다. 오른쪽 그림은 복원도인데, 멘투호텝 2세의 신전 위에 피라미드를 올려 파라오의 힘의 상징성을 더해주었다.

② 이집트 파라오의 이단아, 아케나텐과 그의 아들 투탕카멘

아멘호테프 4세는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를 통틀어 가장 특이했던 왕이다. 또한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 네페르티티의 남편으로도 유명하다. 신왕국 18왕조의 열한 번째 파라오였던 그의 이름 아멘호테프는 '아멘이 기뻐한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멘은 아몬과 동일한 신이고 테베의 주신이었다. 신왕국 18왕조는 왕의 권위가 직전 왕조보다는 높아졌지만 고왕국의 파라오들처럼 신과 동일시되지는 않았다. 때문에 아멘신을 숭배하는 신관들의 힘이 컸고 아멘호테프 4세가 느끼기에 그들의 힘이 자신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이집트의 오랜 전통은 다신교였고 수많은 신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멘호테프 4세가 느꼈듯이 '아톤(아텐)' 이라는 새로운 태양신만을 인정한다며 유일신 제도를 채택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아멘이 기뻐하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마저 벗어던지고 자신이 숭배하는 아톤의 이름을 따, 아톤의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의 '아크나톤' 또는 '아케나텐' 이라고 개명한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테베의 主神, 아멘 신을 벗어나고, 자신의 신 아톤을 여타의 신관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텔-엘-아마르나' 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가 아톤의 지평이라는 뜻의 '아케타톤' 으로 이름을 정한다.



아케나텐과 왕비 네페르티티

사실, 아케나텐의 아버지 아멘호테프 3세는 최고의 군주였다. 그의 시대, 이집트는 더할 나위 없이 번영했고 세련된 문화를 향유하는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러나 말년의 아멘호테프 3세는 정치에서 멀어져 왕비에게 정치를 맡기고 쾌락을 탐닉하는 왕이 되어 있었다. 왕비는 이집트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평민출신이었으나 하트셉수트 만큼이나 뛰어난 기질로 이집트를 잘 다스려 나갔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 아케나텐이, 18왕조의 11 번째 파라오가 된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원전 14세기까지, 이집트는 무던히도 보수적이고 변화를 꺼려한 문화와 예술을 이어갔다. 그림이나 조각 등이 3000년 넘는

시간 동안 똑같은 형태를 취했으니 말이다. 피라미드 시대에 훌륭하다고 찬양받은 것들은 이때에도 여전히 찬양받았고 피라미드 시대에 훌륭했던 예술가를 변함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똑같이 만들어내는 예술가가 가장 뛰어난 예술가였다. 이처럼 일률적이고 딱딱하고 엄숙하며 완전함을 추구한 이집트의 그림과 조각들은 아케나텐의 악동적 요구로 수천 년을 이어온 양식적 철칙과 개념을 흔들어 버렸다. 따오기나 매, 이상한 장식을 머리에 둘러쓴 여러 종류의 신들을 타파했고 오직, 수없이 많은 축복의 손이 달려있는 아톤신이 함께한 작품들을 그림과 조각에 채택했다.

그의 이려했던 행보는 수천 년간 동일한 양식을 고집해온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의 사후에 이집트의 수도와 왕궁은 고대의 수도, 하이집트의 멤피스로 돌아왔고 미술양식 역시 이전의 형식을 찾아 돌아갔다.



수많은 손이 뻗어 나와 있고 앙크를 진 아톤신의 형상



왕가의 계곡에 있는 아케나톤 무덤의 복원모형. 기존과는 다른 자유롭고 규범을 무시한 미술양식을 보여준다.



투탕카멘의 데드마스크 본인의 얼굴을 그대로 마스크로 만든다고 하니 미소년이었던 것은 맞는 듯하다.

그의 아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이다. 괴팍한 아버지 아케나텐의 사후 이복형, 또는 삼촌이라고 추정되는 스멘크카레가 약 2년간 왕위에 있었고 그의 이모이자 어머니인 왕비 네페르티티가 2년간 재위한 후, 열 살경, 어린나이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다. 근친 결혼 때문인지 투탕카멘의 건강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태어날 때, 투탕카텐(아텐의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왕위에 오르고 2년쯤 되었을 때, 투탕카멘(아멘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아버지 아케나텐의 아텐(아톤) 신앙을 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병약했던 투탕카멘은 약 9년 정도 재위하다가 18세의 어린나이에 죽음을 맞아 소년왕으로도 불린다.

그의 업적이나 역사적 기록은 뚜렷한 게 없어, 파라오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가 이집트의 파라오로 그토록 유명했던 이유는 그의 무덤이 그나마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여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의 고고학 발굴이 시작된 이래 한 번도, 이만큼 온전한 무덤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재위기간이 짧았던 때문일까? 왕권이 약했던 때문일까? 그의 무덤은 유명세에 비해 작고 초라하지만 파라오의 아름다운 죽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아이러니하게도 무덤이 작고 초라했던 까닭에, 후사 없이 어린 나이에 죽어 그의 죽음을 냉대했던 혈통 다른 차기 왕 덕분에 무덤은 수천 년간 은폐될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이유로 기원전 14세기의 소년 왕, 그토록 아름다운 미소년의 얼굴을 가진 파라오를 오늘날의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투탕카멘의 무덤 복원모형, 기원전 14세기의 모습이 보존되어, 투탕카멘의 관과 데드마스크, 의자 등을 비롯한 1,300여 점의 유물을 보여주고 있다.

③ 이집트 온 땅을 건드린 건축 왕, 람세스 2세

투탕카멘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그를 보좌하며 실권을 장악했던 '아이' 와 '호렘헤브' 는 투탕카멘의 죽음 이후 스스로 파라오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집트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호렘헤브도 파라오의 자리를 자신의 혈통으로 상속하지 못하고 당대의 사령관이던 람세스 1세에게 후계를 넘긴다. 그 또한 평민출신으로 파라오에 올라 통치기간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들 세티 1세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18왕조가 가져온 이집트의 번영은 왕조 말기, 아케나텐의 때에, 수도 이전과 신전 건축 등으로 흔들렸으나 이제 19왕조로 갈아탄 후, 2대왕 세티 1세 때부터 새로운 번영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세 번째 왕 람세스 2세 때 이집트는 황금기를 누린다.

람세스 2세는 디즈니의 만화영화 '이집트 왕자' 의 주인공으로 친숙해진 이름이다. 물론 그보다 먼저 성경 속, 모세의 출애굽이 람세스 2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해석 때문에 더욱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트셉수트 여왕 때로 보는 견해도 있어 2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차를 보이며 각각의 추정과 설이 난무하다. 이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의 현존하는 신전건축 절반을 그가 손대고 건축한 것이라 할 만큼 건축에 집착했고, 건축의 거대함에 대한 강박적 집착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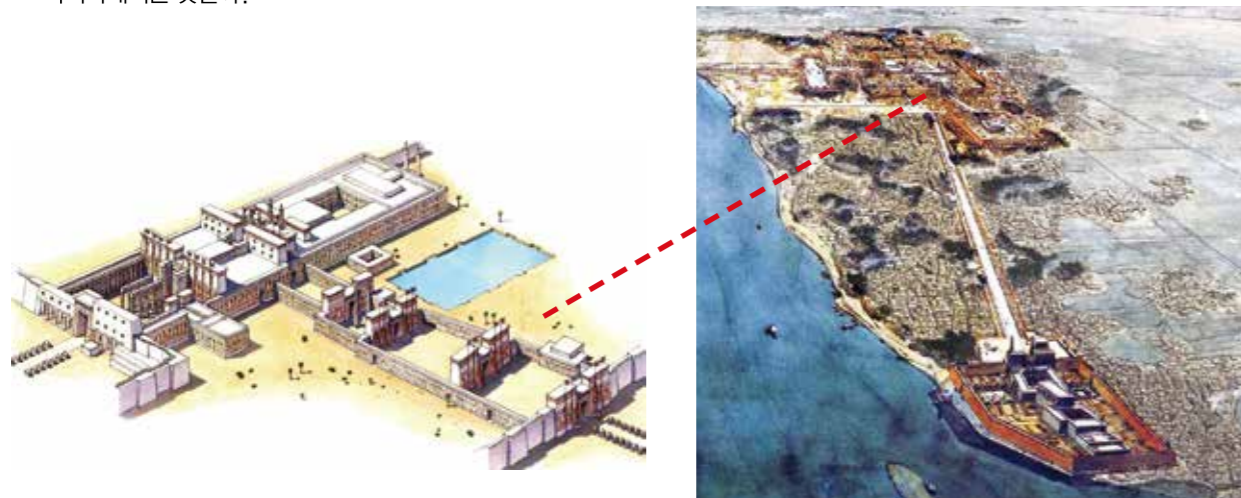
람세스 2세 흉상



왕들의 계곡, 파라오들의 무덤. 출처: pinterest

이집트의 중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파라오의 권위는 약해져 있었다. 왕들이 자신의 힘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은 이집트의 백성들이 숭배하는 신과 자신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은 신왕국 시대에 들어오며 자신의 장제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의 시대를 열며 이집트의 왕실 문화가 되었다. 람세스 2세도 예외는 아니었다. 테베인근, 나일의 서안에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자신의 장제신전 라메세움을 지었다. 훗날 20왕조의 람세스 3세가 람세스 2세를 롤 모델로 따라하며 그 남쪽에 똑같은 장제신전 메디넷 하부(하부의 도시)를 지었으니 그곳에 가면 람세스 2세의 장제신전을 볼 수 있다고 여기면 될 것이다. 이처럼 왕들의 계곡에는 62개의 왕실 무덤이 들어있고 라메세움, 메디넷하부, 하트셉수트의 장제신전 같은 죽음과 관련된 거대 신전이 나일 서안에 놓여 어마어마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나일강의 동안 역시, 카르낙 신전, 룩소르 신전이라 불리는 태양신 아몬과 그의 아내 무트 그리고 그 아들 콘수를 위한 순수하게 신들만의 신전이 놓여 있어 문화유산의 최고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신전들은 대개 람세스가 그 규모를 거대하게 확장하고 신전과 신전 사이 거대한 길을 내어 두 신전을 연결시켜 놓았다. 앞에서 신전을 건설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림으로 설명했었다. 간결해 보이지만 상징성과 공간이 주는 거대함, 엄숙함 등이 사람을 압도하는 장소. 이곳에 파라오의 명예와 권위를, 신들과 결합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건 상징적 기념비, 탑문을 건설한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어마어마해지는 것일까?



카르낙 암문신전/ 각 시대의 파라오들이 중첩하여 세운 탑문이 10개나 된다. 이 영역에 연접해 무트와 콘수 신전이 놓여 있다.

화살표 끝이 카르낙 신전, 람세스 2세가 스프링크스의 길을 만들고 룩소르 신전과 연결해 거대 신전을 만들었다.



저 물속으로 가라앉을 뻔한, 신전이 지금의 자리에서 또 몇 천년 동안 호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람세스 2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집트의 끝 누비아 지역, 눈이 시게 푸른 빛깔의 나세르 호수가 펼쳐진 그곳 아부심벨에는 마치 석산 하나가 신전 하나를 만들어낸 것 같은 암굴의 신전이 놓여 있다. 1960년경 이집트 정부는 아스완 댐을 건설하기 위해 람세스 2세의 신전을 수몰시키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눈은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대로 물속에 잠기도록 버려둘 수는 없었다. 유네스코가 나서, 석산을 수만 개의 블록으로 잘라 신전을 통째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이곳에는 람세스 2세의 대신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네페르타리 왕비의 소신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블록으로 자르고 옮겨가 조립하는 어렵고 지난한 작업은 10년이 걸려 완성되었다. 몇백 년을 사막의 모래에 뒤덮여 겨우 숨만 쉬며 감춰져 있던 신전을, 발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물속에 가라앉아 숨도 못 쉬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인류의 역사의식이 간신히 건져낸 것이다.

기원전 13세기의 람세스 2세가 태양이 뜨는 모든 곳에 태양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싶어 그토록 많은 신전을 건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부심벨의 신전은 태양신보다, 람세스 2세와 그의 왕비를 더욱 도드라지게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보인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형상은 그들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는 때문이다.



모래 속에 감춰져있던 신전 / 아부심벨 대신전의 거상 젓은 모두 람세스 2세, 다리 아래 어머니 아내 자식들이 들어 있다. 세 번째 사진, 아부심벨 소신전은 그가 무한 신뢰했던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한 신전이다.

람세스 2세 이후, 약 1000년 동안 12개의 왕조가 이집트 고대의 역사 위에 더 존재하지만 이보다 더 위대하고 찬란한 문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집트는 더 이상의 새로움이나 경탄할 것 없이 그리스에게 자신들 역사의 무대를 그대로 내주며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만다. 지금은 이슬람의 세계, 이집트는 과거의 풍요, 그 찬란함과는 거리가 먼 채로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을 만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거대한 피라미드와 찬란한 문명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가 그들에게 남겨준 경탄할 축복이며 혜택이라 믿어진다.

역사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다. 카셈

